

Technical Tour를 준비하여

최준성*, 전석원*

본 고에서는 2001년 아시아 YGEC에 참가한 참석자들을 위한 기술견학장소 섭외 및 소개책자 준비, 공항영접준비, 학술대회 후 저녁행사에 관련된 공식적인 준비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술견학은 학술대회 개최기간중 이틀째 날로 정하고, 오후 일정으로 결정되었다.

기술견학 장소 섭외 및 소개책자 준비

기술견학은 학술회의 기간 중 마지막 날 중식과 banquet 사이에 진행이 되어야 하였으므로 서울

소재 혹은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현장을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최초 1999년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있는 교통종합센터와 국내 최초로 건설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1공구 시험도로 방문으로 계획되었으나 행사기간중의 현장왕복시간 및 지반공학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되었다. 시험도로 현장답사 왕복시간은 인터넷을 통한 최악의 교통상황 파악과 필자의 선행답사에 따라 행사진행시간 계획에 다소 무리가 따름을 알 수 있었고, 교통상황 실은 참석한 젊은 지반공학자들에게 지반공학적 관심을 끌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따라 수차례 수정회의결과 난지도 매립현장과 상암 월드컵

*1 정희원, 인덕대학 건설환경계열 토목환경설계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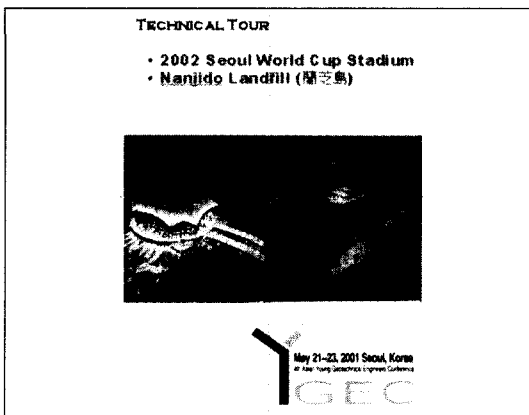
*2 정희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축구경기장으로 중론이 모아졌다. 난지도 매립현장은 2백만평 규모로서 Landfill 이라는 지반공학적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월드컵 경기장 건설현장은 비록 지반공사는 끝났지만 홍보관 관람 및 경기장 내부공사가 참석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최종적으로 견학장으로 결정한 후 기술견학 준비에 들어갔다. 월드컵 주경기장의 경우는 홍보관과 자원봉사대를 운영하여 초반부터 상당히 호의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다. 반면 난지도매립지의 경우는 현재 감리를 맡고 있는 동아건설의 해체로 인하여 협조를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 등을 통하여 협조를 얻고자 하였으나 역시 호의적인 협조를 구하기는 어려웠다. 월드컵 주경기장 방문을 위하여 인터넷 자료를 수집하던 중 난지도 매립지와 월드컵 주경기장을 같이 방문하는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발견하였으며, 난지도매립지 견학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서울시 난지도관리사업소였다. 난지도 관리사업소에 협조요청으로 5월 23일 현장 견학 일정을 확정하였다. 현장견학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으로는 냉방시설을 갖춘 관광버스, 시원한 음료수, 영문 현장소개 책자, 영어 구사 현장 안내인 등이었다. 월드컵 주경기장의 경우 영문 소개 책자와 기념품, 영어안내원 등이 모두 지원되었다. 난지도의 경우 매우 친절한 안내원이 지원되었으나 일반 서울시민들의 현장견학을 위하여 준비된 한국어 비디오테이프와 한글 소개책자 및 한국

어 안내만이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조직 위원들이 가능한대로 통역을 해주는 방식을 택하였다. 소개책자 준비를 위해 인터넷과 언론자료 및 홍보자료를 수집하였고, 각종 연구보고서 및 논문들을 조사하여 난지도 매립현장의 지반공학적 특성을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월드컵 경기장 또한 그 아름다움과 우리 건설수준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차례 수정하였다.

대회개최 한달전인 2001년 4월 19일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기술견학장소인 난지도 매립현장과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사전답사하고, 난지도 관리사무소와 월드컵경기장 홍보관에 견학예약 및 최대한의 협조를 약속받았으며, 우리가 계획한 코스와 같은 방식으로 견학하기로 한 팀을 따라서 미리 예행 연습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5월 2일 견학하기로 한 팀은 오지 않았으나 난지도 관리사무소의 관광버스로 견학내용을 답사하였고, 홍보관장으로부터 토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영어가이드를 준비해 주시기로 구두 약속하였다. 이렇게 기술견학은 계획-책자 준비-예행연습까지 마치고 개최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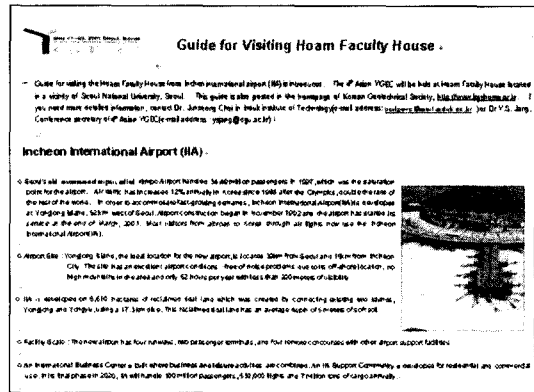
행사당일 예정대로 오후 1시에 23명의 인원이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을 출발하여 한강대교 강북강변로를 경유하여 난지도매립지 서울시 관리사업소의 행사관이 있는 농수산물센타에 도착하였다. 길 건너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과 농수산물 운송차량, 농수산물 센타 주차장의 개보수 등으로 매우 분주하였다. 2층에 위치한 행사관에서 난지도매립지의 현황과 안정화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이후에 한국방송공사(KBS)가 2000년 제작하여 방영한 "환경스페셜-난지도 알을 품다."를 상영하였다. 한국어 나레이션으로 녹음된 40분의 분량 중 난지도에 새로운 식생이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론으로 20분만을 상영하였다. 대절된 버스를 이용하여 1매립지 정상(높이 약 90m)까지 이동하여 매립지의 규모와 현황을 견학하였다.



월드컵 주경기장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자원 봉사대의 따뜻한 영접을 받아 곧 바로 브리핑을 받았다. 이후 홍보관의 전시물들을 순서대로 관람하였다. 경기장의 설계, 시설, 난지도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 월드컵의 역사 등에 관한 친절한 설명이 있었고, 순금 월드컵 트로피의 복제품 앞에서는 모두 트로피를 안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기념품 판매 부스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티셔츠나 기념택지 등을 구입하였다. 이후 현재 잔디공사와 관람석 의자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장 내부를 관람하면서 내년 월드컵 경기의 환성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경기장의 푸른 잔디를 배경으로 단체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현장견학을 마무리 하였다. 난지도매립지 정상에서 다소 시간을 소비하여 예정 시간보다 일정이 조금 늦어졌지만 다행히 호암교수회관에는 5시경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전날 비가 내려 난지도매립지 정상까지의 비포장도로가 염려되어 만약의 경우 정상을 관람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다행히 일정대로 모든 견학을 할 수 있었다. 지반공학도의 관심에 보다 부합하는 견학 대상지를 모색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적은 수의 참가자로 개별적인 접촉과 설명은 수월하였다.

공항영접준비

2000년 첫 블레틴을 작성하면서 1999년 9월 첫 모임에서 생각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였다. "인천 신공항 개항". 과연 개항기간에 운영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김포공항과 인천 신공항으로의 입국에 관한 일은 새로운 일이었다. "과연 개항할 것인가?", "참가자들이 어떻게 올 것인가?" 이런 의문을 시작으로, 일단 인천신공항에서 오는 방법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띄우고,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인천 신공항에서 서울대 호암관까지 오는 방법을 mail로 보내기로 하였다. 공항오는 방법은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모든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내국인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인천신공



항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의 지리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낯선 이방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낯선 국가를 처음으로 방문할 때 기내에서 반드시 들여다 보는 내용이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이동방법이며 특히 심야 혹은 새벽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조직위에서는 개별 pick-up 서비스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모든 참가자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알리고 희망자는 비행일정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총 10명의 외국인 참가자가 pick-up을 신청하였는데, 개최일자에 매우 압박하여 연락을 하여온 신청자들이 있어 인원을 할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총 6팀으로 나누어 1~3명씩을 pick-up하였으며 새벽에 도착되는 참가자들은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서 pick-up하였다. 환송은 5월 24일 오전에 1회 공항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6명의 참가자가 이용하였으며, 타시간에 출발하는 참석자들은 개별적으로 공항가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학술대회후 저녁행사

YGEC 성격상 젊은 지반공학자들이 모여 관련 학문을 토론하고 서로 친분을 쌓아가는, 다른 학술대회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 자유스러움이 존재한다는 1회, 3회 참가하신 이인모교수님과 김동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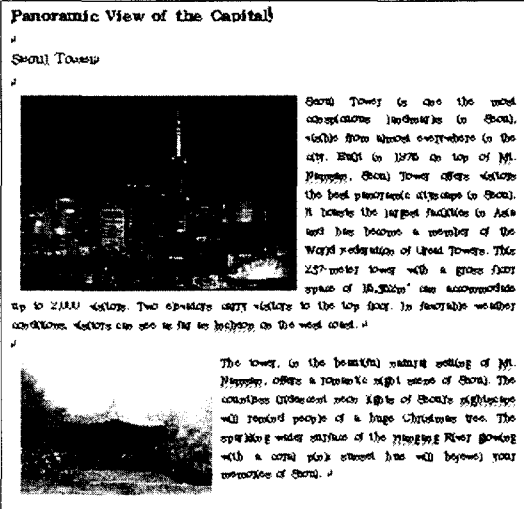
님의 조언 및 직접 작년에 영국에서 개최된 세계 YGEC 에 참석했던 이석원 박사의 경험담을 토대로 학술대회 저녁행사에 대해 준비하였다. 첫째날은 Welcome Reception 행사중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를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국악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국악연주 및 판소리를 준비하였다. 국악연주와 판소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에 미리 국악과 학생들과 연락하고, 5월초에 호암관 크리스탈룸을 돌아보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비록 연주회가 아닌 식사자리였지만 우리나라를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첫날의 긴장감과 어색함속에서도 외국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고, 서로 같이 사진을 찍으려는 인파로 저녁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해프닝도 발생하였다. 이 이후에도 몇 명 참가자들은 계속되는 저녁행사를 가지면서 친분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둘째날은 저녁식사후 남산야경과 인사동거리를 구경하는 기회를 가졌다. 남산가는 동안 이태원 및 서울시내를 구경할 기회를 가졌으며, 기념사진만 찍고 오려는 계획에서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으로 남산타워까지 올라가 서울시 전체야경을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 인사동은 비록 저녁시간이 지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으나 거리를 직접 걸으며, 이야기하고 이국의 문물을 관광한다는 사실에 많은 참가자들이 들떠 호암관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탑승하지 않으려 했지만 준비위원들의 독촉에 아쉬움이 가득한 발걸

음을 돌려야만 했다. 마지막 셋째날은 발표도 끝나고, 아쉬움속에서 호프집에서 뒷풀이하는 행사를 가졌다. 뒷풀이는 노래방으로까지 이어져 참가자 전원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We are the world (Asia)”를 부르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다음 날 새벽에 출발하는 참가자들을 위해 섭섭함속에 봉천동 4거리에서 keynote를 제외한 참가자 전원이 서울대 호암관까지 약 30분정도의 밤거리를 걸어가 는 야간행군을 하면서 그 동안의 짧은 사귀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후 소감

1999년 9월 어느 날 지방공학회로부터 한통의 팩스가 날라 들어왔다. 9월 17일 제 4차 아시아 지역 YGEC 준비모임을 위해 참석하여 달라는 뜻밖의 내용을 신고... 처음 팩스를 받아 들었을때는 YGEC 라는 뜻도, 그리고 한번도 학회의 일을 나서서 해보지 않은 얼떨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명환 박사님의 주도로 시작된 준비모임 회의내내 상황과 악만이 바뀐 실정이었음이 상기되어 슬그머니 미소가 스며 나온다. 처음 보인 준비위원들과 수인사를 한 후부터 각자의 업무분장에 이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학술대회를 수행할 것인지가 활발히 토론되었다. 이인모 교수님과 김동수 교수님의 참가하셨던 경험 및 YGEC의 취지에 맞추어 다른 대회와는 달리 활발하고 자유로움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당시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필자는 Technical Tour와 공식적 학술대회후의 일정계획을 준비하게 되었다. YGEC 준비위원들은 각자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준비를 하였으나 나이가 비슷하고, 젊다는 이유로 서로의 업무에 같이 참여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은 것이 준비과정내내 열심히, 그리고 활기차게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처음 안건이 된 것은 대회일시와 장소결정, 준비방안 및 조직구성, 국내참가자 유도 및 개최기간



Panoramic View of the Capital

Seoul Tower

Seoul Tower is one the most conspicuous landmarks in Seoul, visible from almost everywhere in the city. Built in 1976 on top of Mt. Namsan, Seoul Tower offers visitors the best panoramic view of Seoul. It boasts the largest facilities in Asia and has become a member of the World Federation of Great Towers. The 237-meter tower with a gross floor space of 16,500sqm can accommodate up to 2,000 visitors. Two elevators carry visitors to the top floor. In favorable weather conditions, visitors can see as far as Incheon on the west coast.

The tower, in the beautiful natural setting of Mt. Namsan, offers a panoramic night view of Seoul. The colorful illumination near the top of Seoul's skyline will remind people of a huge Christmas tree. The sparkling water curtain of the Namsan River flowing with a coral pink sunset hue will beyond your imagination of Seoul.

중의 가족적인(?) 운영방안 수립이었다. 대회장소는 연세대 알렌관과 서울대 호암관을 목표로 객실 및 세미나실 등 세부적인 상황을 비교한 결과 서울대 호암관으로 결정되었다. 소수의 의견으로는 연세대가 될 경우 저녁에 너무 자유롭게 나다니다가 행사날 아침에 출석률이 미비하면 어쩌나하는 의견도 있었다. 필자가 준비하기로 한 Technical Tour 및 시내관광, 그리고 가족적인 운영방안의 계획수립은 개최시까지 여유가 있어 다른 행사준비하시는 분들을 도울 여유가 있어 좀 더 친해질 기회를 가지는 것 또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기술견학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을 제어보는 등 열심히 준비하던 중 동국대 장연수교수님께서 준비모임을 주관하면서 일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계속되는 월례회의속에 보다 세심하게 준비하면서 처음 계획했던 많은 과정들이 바뀌었다. 기술견학 장소는 많은 토론후에 허용된 시간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난지도 매립지와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저녁행사는 호텔바에서 남산야경과 인사동으로 방향을 틀어 준비하였다. 소개책자 및 간단한 관광가이드용 브러쉬도 만들기로 하였다. 또한 입국장소가 김포공항에서 인천신공항으로 바뀐 것은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과연 행사기간까지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속에 준비위원들도 오는 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인천신공항에서 서울대 호암관까지 오는 각종 방법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올리고 참가자들에게 통보해야만 했던 것이다. 각종 준비과정자료가 꽤 많이 책장에 꽂혀 있는 걸 보면 너무 일을 어렵게 생각하고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각종 자료수집과정에서 애를 많이 써 준 연세대학교 김지성군과 박성용군에게 감사를 표한다.

행사기간중에는 젊은이들의 모임속에 서로의 친분을 다지기 위한 저녁모임들이 있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특이한 것은 외국의 참가자들은 국내처럼 군입대기간이 없으므로 대부분 준비위원과 국내참가자들보다 3-4살 아래라는 점이다. 저녁모임 맥주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중에 우리도 빨리 통일이 되어 후배들은 외국의 엔지니어와 동등한 나이로 시작하기를 바라며 지화자!를 연신 외친 것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는다. 그러한 저녁모임은 젊은 지반공학자 학술대회라는 타이틀처럼 참가자들이 학술대회에 활발히 참가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었다. 다소 지역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참여하는 날짜들은 틀렸지만 마지막 날의 호프집에서의 게임(007게임)과 노래방에서의 화기에매함(^^)은 헤어지기에 아쉬움을 남겼고, 봉천동 4거리에서 호암관까지 걸어가는 야간행군으로 서로의 섭섭함을 대신하였다. 아시아의 많은 지반공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YGEC를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젊은이들이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